

1. 보험업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겸영하지 못한다.
- ② 보험회사는 그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주로 경영하는 보험업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한다.
- ③ 보험회사는 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하려면 그 업무를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④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예비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2. 보험업법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을 말한다.
- ② 상호회사란 보험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보험업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보험계약자를 사원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 ③ 보험설계사란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자를 말한다.
- ④ 모집이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일반보험계약자로서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업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청약자”)의 철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회사는 청약자에 대하여 그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보험회사는 청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③ 보험증권의 교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보험계약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 ④ 보험계약 청약의 철회 당시 이미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4. 보험계약자 등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험업법은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②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할 책임을 진다.
- ③ 모집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배상을 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이나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대한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는 금지된다.
- ④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발생한 보험계약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하여는 민법 제766조를 준용한다.

5.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에 적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은?

- ① 보험약관으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사항
- ②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에 관한 사항
- ③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 ④ 다른 보험회사 상품과 비교한 사항

6. 보험을 모집할 수 없는 자는?

- ① 보험회사의 사외이사
- ② 보험중개사
- ③ 보험회사의 직원
- ④ 보험설계사

7. 보험중개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자는 보험중개사가 되지 못한다.
- ③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은 보험 중개사로 등록할 수 있다.
- ④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의 체결권과 보험료수령권을 가진다.

8.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 설명하여야 할 중요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 보험회사의 명칭
- ② 보험회사의 대표자
- ③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기간
- ④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9. 보험 모집시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반보험계약자의 연령, 재산상황, 보험가입의 목적 등에 비추어 그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면담 또는 질문을 통하여 보험계약자의 연령, 재산상황, 보험가입의 목적 등을 파악하고 일반보험계약자의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③ 모든 보험계약을 모집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의 동의를 얻어 모집하고자 하는 보험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청약의 내용을 확인·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 이익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은?

- ①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의 금품
-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 ③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 ④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

11. 보험계약법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의 조합은?

가. 단체성  
나. 차별취급성  
다. 선의성  
라. 절대적 강행규정성  
마. 공공성

- ① 가나다
- ② 가다마
- ③ 나다라
- ④ 다라마

12. 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 ③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는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한하여 그 증권내용의 정부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이 기간은 3월을 내리지 못한다.
- ④ 보험증권을 멸실 또는 현저하게 훼손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그 증권작성의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13.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대리상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② 보험대리상은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③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④ 보험대리상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14. 상법상 보험계약자가 가지는 임의해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 ②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 ③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④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임의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5.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의 효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보험계약자가 해지하지 아니한 보험계약은 파산선고 후 2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 ③ 보험계약은 당연 무효이다.
- ④ 보험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16. 상법상 다음 ( )안에 들어갈 숫자로서 옳은 것은?

- A.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후 ( ㉠ )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 B.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 ㉡ )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① ㉠ - 1월    ㉡ - 10일
- ② ㉠ - 1월    ㉡ - 15일
- ③ ㉠ - 2월    ㉡ - 10일
- ④ ㉠ - 2월    ㉡ - 15일

17.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 ② 중대한 과실이라고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
- ③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④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상법 제4편(보험) 제1장(통칙)에 규정되어 있다.

18. 다음 중 상법상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자의 책임은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하지만 당사자간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는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하지 않지만 당사자간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지지만 당사자간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지만 당사자간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9. 다음 중 그 연결이 잘못된 것은?

- ①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해태시 - 해태로 인하여 증가된 손해에 대한 보험자 면책
- ②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해태시 -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 보험료의 증액청구
- ③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 증가 -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 보험료의 증액청구 또는 보험계약의 해지
- ④ 보험자의 약관 교부·설명 의무 위반시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 가능

20. 상법상 각 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입힌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②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③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④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21. 다음 중 상법상 각 보험에 관한 준용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법 제4편(보험)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호보험, 공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에 준용한다.
- ②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생명보험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용한다.
- ③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증채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상법 제4편 중 제5절(책임보험)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재보험계약에 준용한다.

22. 피보험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의 조합은?

가. 상법상 '보험의 목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나.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다. 계약성립시까지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종교적 가치와 같이 금전으로 산정 불가능한 것도 피보험이익이 될 수 있다.  
 마. 보험계약의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된다.

- ① 가나다
- ② 가다라
- ③ 나다라
- ④ 다라마

23.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금액이 있음으로 인하여 보험자는 자신이 부담할 책임의 최고액을 알 수 있게 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를 책정한다.
- ②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 성립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 ③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각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 ④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4. 甲은 자신의 가옥에 대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지정하였다. 그런데 보험기간 중 甲의 아들 乙이 그 가옥에 화재를 중과실로 발생케 하였다. 이 경우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 의한 옳은 설명은?

- ① 보험자가 甲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乙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대표자책임이론에 의하여 보험자는 면책된다.
- ③ 乙의 중과실이 개입된 사고이므로 보험자는 면책된다.
- ④ 甲의 고의, 중과실이 개입되지 않은 한,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25.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청구권대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3자는 피보험자에 대한 항변으로 보험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 ②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민법상 지명채권양도절차에 의한 대항요건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 ③ 보험자는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한다.
- ④ 제3자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 경우 보험자는 청구권대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6. 화재보험계약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화재보험은 위험보편의 원칙에 따라 화재로 손해가 생긴 이상 화재의 원인을 묻지 않고 재산상, 인명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 ② 화재보험자는 화재로 인한 직접 손해뿐만 아니라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③ 화재보험자는 화재의 혼란한 틈을 타서 도난당한 물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보상할 책임이 없다.
- ④ 화재보험계약 당사자간 보험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27. 상법상 운송보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운송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② 운송물의 보험에 있어서는 발송한 때와 곳의 가액과 도착지까지의 운임 기타의 비용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 ③ 운송보험계약은 운송의 필요에 의하여 일시운송을 중지하거나 운송의 노선 또는 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 ④ 보험사고가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8. 인보험계약에 대한 상법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인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 ② 인보험계약의 보험금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③ 임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도 유효하다.
- ④ 둘 이상의 보험수익자 중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보험자는 다른 모든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도 면한다.

29. 생명보험에서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약이 없는 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가 된다.
- ② 특약이 없는 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
- ③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됨이 원칙이다.
- ④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

30. 상법은 질병보험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 )에 들어갈 용어 중 옳은 것은?

- ① 생명보험
- ② 상해보험
- ③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
- ④ 손해보험 및 상해보험

31. 다음 중 위험전가(risk transfer)의 기법이 아닌 것은?

- ① 보험
- ② 캡티브(captive insurance)
- ③ 헷징(hedging)
- ④ 무해협약(hold-harmless agreement)

32. 손실 L의 확률분포가 보기와 같을 때 기대손실(expected loss)과 95% 신뢰도 수준에서의 가능최대손실(probable maximum loss)은?

$$L = \begin{cases} 0\text{원}, & \text{확률 } 0.55 \\ 500\text{원}, & \text{확률 } 0.4 \\ 1,000\text{원}, & \text{확률 } 0.05 \end{cases}$$

- ① 200원, 500원                      ② 200원, 1,000원
- ③ 250원, 500원                      ④ 250원, 1,000원

33. 위험의 다음 분류 중 옳바른 것은?

- ① 경기침체는 순수위험(pure risk)이며 분산할 수 있는 위험이다.
- ② 자동차사고는 투기적 위험(speculative risk)이며 분산할 수 있는 위험이다.
- ③ 건물화재는 순수위험이며 분산할 수 없는 위험이다.
- ④ 물가변동은 투기적 위험이며 분산할 수 없는 위험이다.

34. 다음 중 근본위험(fundamental risk)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경제 불황                              ② 전쟁
- ③ 지진                                      ④ 화재

35. 위험관리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위험과 관련된 인간의 총체적인 활동을 광의의 위험관리라고 할 수 있다.
- ②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모든 경제주체는 위험관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③ 위험관리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에 포함된다.
- ④ 위험관리의 목적은 위험의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36. 다음 요건을 갖춘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소비자 신용 관리제도는?

-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하지 않고 경과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 총채무액 15억원 이하인 자. 이 때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황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 ① 개인워크아웃제도
- ② 개인회생제도
- ③ 프리워크아웃제도
- ④ 개인파산제도

37. 다음 중 주택연금(역모기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입자 사망 시 수령한 연금의 총액이 주택가치보다 작은 경우 차액은 상속인이 수령한다.
- ② 가입자 사망 시 수령한 연금의 총액이 주택가치보다 큰 경우 차액을 상속인에 청구한다.
- ③ 주택소유자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 종신휴연금 선택이 가능하다.
- ④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1주택 소유자라면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하다.

38. 상속세에 관한 아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배우자 생존시, 생존한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증여재산이 없을 때에는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 ② 부모의 유고로 인하여 대습상속으로 손자가 직접 상속받는 경우에는 30% 할증 과세한다.
- ③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이전에 납부한 상속세 중 재상속분에 대한 이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공제한다.
- ④ 피상속인 사망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39.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A씨는 현재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에 연간 200만원씩 납입하고 있다. 어느 날 보험설계사로부터 IRP를 개설하여 납입하면 추가적인 세제혜택(세액공제)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현재 A씨가 IRP 납입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세액공제)의 최대한도는 얼마인가? (단, A씨는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 이외에 납입하고 있는 여타 세제혜택(세액공제) 관련 사적연금은 없다고 가정한다.)

- ① 700만원
- ② 500만원
- ③ 300만원
- ④ 200만원

40. 다음 중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방법으로 옳은 것은?

- ① 변액보험의 주식 투자분 중 주식 시세차익으로부터의 수익은 비과세하고 배당으로부터의 수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 ② 저축성보험의 보험금을 만기환급이 아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해 수령할 경우 해당 보험금에 대하여 과세한다.
- ③ 종신휴 연금보험은 보험금을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종신휴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보험료 납입규모와 관계없이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한다.
- ④ 보험유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보험료를 매월 납입하는 방식으로 60개월 이상 납입하는 경우에 납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한다.